

1번 문단

육체노동에 대한 경멸과 예배수단 및 선전도구로서의 예술에 대한 존중이라는 **내적 모순**에 직면한 고대인들은 예술가 개인과 그 작품을 **분리**시킴으로써 이 모순의 **해결책**을 찾았다. 즉 **작자는 경멸하면서 그가 만든 작품은 존중하는 것이다.**

아르놀트 하우저, 『문학과 예술의 사회사 1』, 백낙청 옮김, 창작과비평사, p.161

독해 포인트

1. '내적 모순'이 발생한 이유는 무엇인가?
2. '분리'는 어떻게 '내적 모순'의 '해결책'이 되는가?
3. '작자'를 경멸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memo

3번 문단

선거제도의 주요한 해악 가운데 한 가지는 선거제도가 언제나 국내외 정책에 일정한 수준의 불안정을 초래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선거제도의 이러한 불리한 점**은 선거로 뽑힌 행정수반에게 부여되는 권력의 몫이 적을 경우에 그리 심각하게 감지되지 않는다. 로마공화국에서는 **호민관들이** 매년 바뀌었지만 **통치원칙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세습적 회의체였던 **원로원**이 지도적인 권위를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다.

알렉시스 토크빌, 『미국의 민주주의 1』, 임효선, 박지동 옮김, 한길사, p.195

독해 포인트

1. '선거제도의 불리한 점'은 무엇인가?
2. '호민관'은 어떤 직책인가? (배경지식x, 문단 안에서의 의미 찾기)
3. 문단에서 나타난 '호민관'과 '원로원'의 핵심적 차이는 무엇인가?

memo

1번 문단

(1)육체노동에 대한 경멸과 예배수단 및 선전도구로서의 예술에 대한 존중이라는 **내적 모순**에 직면한 고대인들은 예술가 개인과 그 작품을 **분리**시킴으로써 이 모순의 **해결책**을 찾았다. (2)즉 **작자**는 **경멸하면서** 그가 만든 작품은 존중하는 것이다.

아르놀트 하우저, 『문학과 예술의 사회사 1』, 백낙청 옮김, 창작과비평사, p.161

문장 (1)의 주체가 되는 ‘고대인들’은 육체노동을 경멸하고, 예술은 존중합니다. 저자는 이런 고대인들의 태도가 ‘내적 모순’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왜 ‘내적 모순’일까요? 문장의 앞부분만 읽었을 때는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내적 모순’인지를 이해하지 못했더라도, **최소한 ‘모순’이라는 단어를 본 순간 ‘육체노동을 경멸하면서 동시에 예술을 존중하는 것이 모순이구나’**라는 정보는 머리에 입력해야 합니다.

그 모순의 ‘해결책’은 예술가와 작품을 ‘분리’하는 것이라고 주어집니다. 바꿔 말하면, 예술가와 작품이 분리되지 않은 상태는 모순이 존재하고, 분리된 상태에서는 모순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술가와 작품을 분리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문장 (2)는 ‘즉’이란 부사로 시작합니다. 저자가 ‘즉’을 쓰는 이유는, **두 번째 문장의 내용이 앞선 문장, 특히 ‘분리’의 재진술이라는 점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이로써 아까 잘 이해하지 못했던 ‘분리’의 뜻을 제대로 알려줍니다. **예술가와 작품을 분리시킨다는 것은, 작자(=예술가)는 경멸하면서 작품은 존중한다는 얘기였어요.** 그렇다면 작자를 왜 경멸할까요?

아까 고대인들은 육체노동을 경멸하고, 예술을 존중한다고 했습니다.

고대인들의 태도		
경멸의 대상	육체노동	작자(=예술가)
존중의 대상	예술	작품

아, 그럼 예술가는 ‘육체노동’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경멸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군요! 그런데 고대인들은 ‘예술’을 존중했기 때문에, 예술을 존중하면서 동시에 예술가를 경멸한다는 것이 모순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술 작품은 예술 작품대로, 예술가는 예술가대로 ‘분리’해서 보게 되면, 예술가는 경멸하면서도 그가 만든 예술 작품만큼은 존중하는 것이니, 모순이 해결된다는 얘기였습니다.

예술가가 왜 ‘육체노동’을 하는 사람인지 모르겠다고요? 못과 망치로 조각을 깎고, 붓과 물감으로 벽화를 그리는 것은 육체노동이잖아요. 이렇게 들으면 당연한 얘기죠? 예술가가 하는 일은 육체노동이고, 고대인들은 육체노동을 경멸했으니 육체노동을 하는 예술가도 경멸했던 겁니다.

계속 반복해서 읽어도, 혼자서는 예술가를 ‘육체노동’을 하는 사람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런 학생들은 거시독해를 더욱 열심히 공부해서 본인의 단점을 메꿀 필요가 있어요.

3번 문단

(1)선거제도의 주요한 해악 가운데 한 가지는 선거제도가 언제나 국내의 정책에 일정한 수준의 불안정을 초래한다는 점이다. (2)그러나 **선거제도의 이러한 불리한 점**은 선거로 뽑힌 행정수반에게 부여되는 권력의 몫이 적을 경우에 그리 심각하게 감지되지 않는다. (3)로마공화국에서는 **호민관들이** 매년 바뀌었지만 **통치원칙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 (4)왜냐하면 세습적 회의체였던 **원로원**이 지도적인 권위를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다.

알렉시스 토크빌, 『미국의 민주주의 1』, 임효선, 박지동 옮김, 한길사, p.195

문장 (1)의 키워드는 선거제도의 '**주요한 해악**'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정책의 '**불안정**'이죠. '불안정'의 사전적 의미는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지 못함**'입니다. 이는 '선거제도'가 어떤 것인지를 생각해보면 납득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선거제도 하에서는 일정한 주기마다 선거를 해서 지도자를 바꾸기 때문에, 한 정책이 일정하게 유지되기 어렵죠. 지도자가 바뀌면 그들이 자기가 원하는 정책을 추진할 것이기 때문에, 선거제도가 불안정이라는 특징(해악)을 가진다는 점은 납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선거제도가 왜 불안정을 초래하는지 이해하지 못했다면, 이후의 문장 (3)을 통해 추론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거제도의 이러한 불리한 점**'은, **지도자가 교체됨에 따른 '정책의 불안정'**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이 불안정은 '선거로 뽑힌 행정수반에게 부여되는 권력의 몫이 적'다면 큰 문제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아마 그럴까요? 선거로 뽑힌 행정수반(지도자)이 마음대로 정책을 바꿀 수 있는 권력이 적다면, 당연히 불안정도 크게 나타나지 않을 겁니다.

문장 (1), (2)에서는 선거제도에 대한 일반적인 얘기를 하다가, 문장 (3)에서 갑자기 '**로마공화국**'이라는 구체적인 시기, 구체적인 사례를 언급합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문장 (3)은 문장 (2)를 설명하는 예시일 거예요. 우리는 문장 (2)의 내용과 문장 (3)을 대응시켜서 읽어야만 합니다. 그럼 매년 바뀌었다는 '**호민관**'은 무엇일까요? 네, '**선거로 뽑힌 행정수반**'일 거예요. 문장 (3)이 문장 (2)의 예시라면, 당연히 문장 (3)의 '호민관'은 (2)의 특정 어구와 대응되어야 할 것이고, 호민관이 매년 바뀌었다는 점에서 이들이 매년 선거로 뽑힌 '행정수반'이라고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공화국에서는 매년 행정수반이 바뀌었음에도 통치원칙, '정책'은 거의 바뀌지 않았다고 해요. 요컨대, '선거제도'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불안정'이 적었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문장 (4)에서 설명됩니다. 원로원이 '**지도적인 권위**', 즉 '**권력**'을 지녔기 때문에, 호민관들은 자기 마음대로 통치원칙이나 정책을 쉽게 바꿀 수 없었던 거예요. 문장 (2)에서는 '행정수반에게 부여되는 권력의 몫이 적을 경우'에는 불안정이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문장 (4)에 나타난 로마 공화국은, 호민관이라는 행정수반이 원로원이라는 집단에 비해 권력의 몫이 적었기 때문에 '선거제도의 불리한 점', '주요한 해악'이 나타나지 않았던 거예요.

더불어, 수능에서 문장 (4)가 나온다면 주목해야 할 키워드는 '**세습적**'이에요. '세습적'의 사전적 의미는 '후손들이 대대로 물려받는' 것입니다. 즉, 원로원은 매년 바뀌는 게 아니라, '**세습적**'으로 꼭 유지되는 것이었기에 **매년 선거로 교체되는 호민관과 대조**되죠. 만약 수능에 이런 문단이 나온다면, '세습적으로 꼭 유지되는 원로원'과 '매년 바뀌는 호민관'을 비교하는 선지가 반드시 하나는 출제됩니다.

정리하자면, 세습적인 원로원들은 큰 권력을 지녔고, 일정한 통치원칙을 유지했기에 정책의 안정성도 담보되었습니다. 매년 선거로 교체되는 행정수반인 호민관들은 권력의 몫이 적었고, 따라서 이들이 정책을 쉽게 바꿀 수 없었기에 로마공화국에는 정책의 불안정이 심하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